

권오을 장관, 김대중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묘소 15일 참배

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취임 이후 진영에 관계없이 전직 대통령의 서거일과 영부인들의 기일에 맞춰 참배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15일(토) 오전, 국립서울현충원(서울 동작구)을 찾아 고(故)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(故) 육영수 여사 묘소를 참배하고 추모했다.

권오을 장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일(2009. 8. 18.)이 오는 18일이지만, 당일이 을지훈련 첫 날인 점을 고려하여 이날 묘소를 찾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한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며 헌화·분향했다.

권오을 장관은 김 전 대통령 묘소 참배 후 육영수 여사의 기일(1974. 8. 15.)을 맞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서울현충원 내 박정희 전 대통령 합장 묘소를 찾아 헌화·분향을 하고 참배했으며, 이날 추모식이 열린 서울현충원 현충관에는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근조 화환이 비치됐다.

특히, 권 장관은 역대 대통령은 물론 손명순·프란체스카·이희호·홍기 여사 등 영부인들의 기일에 맞춰 대통령 명의 근조 화환을 비치하면서 참배와 추모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. <끝>

별첨. 김대중 전 대통령 및 육영수 여사 묘소 참배 사진

담당 부서	보훈예우정책관 국립묘지정책과	책임자	과 장	조재영 (044-202-5550)
		담당자	사무관	이영 (044-202-5551)